

『東醫寶鑑』鍼灸篇의 醫史學的 考察

- 「內景篇」에 나타난 鍼灸法을 중심으로 -

吳準浩 · 車雄碩 · 金南一*1)

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醫史學教室

A study on DongUiBoGam(東醫寶鑑) ChimGu Chapter(鍼灸篇) based on the NaeGyeong Chapter(內景篇).

Oh Jun Ho · Cha Wung Seok · Kim Nam Il

DongUiBoGam(東醫寶鑑) is Joseon's classic medical text that has great significance in the medical history of Korea. However, the context of the treatments of accupuncuret&moxibustion in the book are hardly studied.

This study is for the purpose of examining the treatments of accupuncuret&moxibustion in DongUiBoGam(東醫寶鑑), and it starts with studying the accupuncuret&moxibustion part of DongUiBoGam(東醫寶鑑)'s NaeGyeong Chapter(內景篇) for starters.

Through this study, the following could be known.

- 1. In DongUiBoGam(東醫寶鑑)'s NaeGyeong Chapter(內景篇), it is written that it quoted many various books, but actually, most of the parts are quoted from LouYing(樓英)'s YiXueGangMu(醫學綱目).*
- 2. LouYing(樓英)'s YiXueGangMu(醫學綱目) is a work of the Ming Dynasty, which is when China's study of accupuncure&moxibustion was completed and many books on accupuncure&moxibustion were published.*

*1) 교신저자

오준호,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1번지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E-mail : pinedance@khu.ac.kr Tel : 02-964-3190

차웅석,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1번지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E-mail : chawung@khu.ac.kr Tel : 02-961-9446

김남일,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1번지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E-mail : southkim@khu.ac.kr Tel : 02-961-0672

3. However, in *DongUiBoGam*(東醫寶鑑), it mainly quotes from *YiXueGangMu*(醫學綱目), instead of these professional acupuncture&moxibustion texts.

This is because this book is a comprehensive medical text with various medical theories, which share the same flow with *DongUiBoGam*(東醫寶鑑), and at the same time, it organized the treatments of acupuncture&moxibustion in a big scale in various ways.

Key words : 『*DongUiBoGam*(東醫寶鑑)』, 『*Chimhupyeon*(鍼灸篇)』, 『*NaegyeongPyeon*(內景篇)』, acupuncture, 『*YiXueGangMu*(醫學綱目)』

I. 緒 論

『東醫寶鑑』은 朝鮮 중기 許浚이 저술한 종합의방서로서, 많은 의가들의 다양한 의서들을 섭렵하여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은 의서이다. 이 『東醫寶鑑』에는 醫論과 醫方 외에 鍼灸治療에 대한 많은 내용이 실려 있다. 이러한 『東醫寶鑑』의 「鍼灸篇」과 鍼灸法篇은 조선중기 침구치료의 특색을 알려주는 귀중한 자료로서 앞으로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東醫寶鑑』 鍼灸法篇에 인용된 인용서적들을 고증하고, 이를 중심으로 『東醫寶鑑』 침구치료의 특징과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연구의 시작 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東醫寶鑑』 內景篇 鍼灸法篇¹⁾에 나타난 내용을 중심으로, 원래 인용문을 복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東醫寶鑑』의 「鍼灸篇」과 鍼灸法篇은 조선 중기 침구의학의 발전을 반영하는 저작임과 동시에 조선 침구학의 정체성을 드러내 주는 중요한 저작이다. 조선시대 의학은 주로 백성을 구휼하고 왕권을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발전하여 왔다. 高麗末 朝鮮初부터 꾸준하게 이어져 내려오던 鄉藥에 대한 연구나 『鄉藥集成方』, 『醫方類聚』, 『救急方』, 『診解救急方』, 『東醫寶鑑』 등 여러 의서들의 간행을 통해 이를 분명히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중앙 정부로부터 의서들이 간행되고 향약에 대한 개발이 이루어졌지만 『東醫寶鑑』 서문²⁾에서 보이는 것처럼 여전히 약재는 일반 백성들에게 구하기 어려운

1) 『東醫寶鑑』은 「內景篇」 「外形篇」 「雜病篇」 「湯液編」 「鍼灸篇」 등 모두 다섯 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鍼灸篇」에서는 침구의 개론적인 내용을 위주로 기록되어 있고, 각 질환에 따른 치료는 해당 門 말미에 「鍼灸法」 혹은 「灸法」, 「鍼法」의 형태로 따로 적고 있다. 여기서는 각 門에 같이 실려 있는 침구내용을 「鍼灸篇」과 구별하기 위하여 「鍼灸法篇」이라고 부르기로 하겠다.

2) 『東醫寶鑑』·序文·… 宣宗大王 … 召太醫(臣)許浚 教曰 近見 中朝方書 皆是抄集庸瑣 不足觀爾 宜哀聚諸方輯成一書 且人之疾病 皆生於不善調攝 修養爲先 藥石次之 諸方浩繁 務擇其要 窮村僻巷 無醫藥而夭折者多 我國鄉約多產而 人不能知爾 宜分類並書 鄉名使民易知 …

것들이었다. 때문에 보다 간편하게 시술하면서도 효과가 좋은 침과 뜸을 이용한 치료가 발전하게 되었다. 특히 17세기는 이런 침구의학이 크게 발전하였는데, 허준의 『東醫寶鑑』鍼灸篇과 許任의 鍼灸經驗方 등이 그러한 발전을 보여주는 저작들 이다.³⁾

이에 본 논문에서는 조선 중기 침구학의 내용을 略述하고 『東醫寶鑑』內景篇 鍼灸法篇의 내용을 출전을 중심으로 비교 고찰한 다음,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침구치료의 특징들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II. 本 論

1. 朝鮮 中期 鍼灸醫學의 발전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조선은 건국 초기부터 침구분야에 많은 관심을 쏟아왔다. 의학교육과정 중에서도 침구관련과목을 중요시하여, 『銅人經』, 『鍼灸指南』, 『十四經發揮』, 『子午流注』, 『針經適英集』, 『玉龍謠』, 『針灸資生經』 등을 지원자들의 필독서로 지정하였다.⁴⁾ 또 『鄉藥集成方』과 『醫方類聚』에도 침구관련 내용을 비중 있게 실고 있다.

조선 중기에 와서 중국에서도 침구학이 많이 발전하게 되었다. 대륙의 의학지식이 집대성되고 침구학의 내용도 실용적인 모습으로 다듬어 지기 시작하였다. 이런 성과를 반영하는 저작으로 元나라 危亦林的 『世醫得效方』, 明나라 樓英의 『醫學綱目』, 明나라 李梴의 『醫學入門』 등을 들 수 있다. 또 이러한 저작들은 기존 침구전문서의 틀을 탈피하여 침구법을 醫論, 醫方과 함께 설명하고 있어 『東醫寶鑑』 「鍼灸篇」과 鍼灸法篇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世醫得效方』과 『醫學綱目』은 『東醫寶鑑』 鍼灸法篇의 근간이 된 저작으로서 많은 내용이 『東醫寶鑑』에 인용되어 있다.

2. 주요 인용서의 서지학적 배경

『東醫寶鑑』 鍼灸法篇는 크게 세 서적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針灸資生經』 『世醫得效方』 『醫學綱目』이 그것이다.⁵⁾ 여기서는 이 세 서적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3) 박문현, 「허임 『침구경험방』 연구」, 2002, 경희대학교 대학원

4) 김두중, 『한국의학사』, p421 經國大典에서는 醫科取才의 과목을 적고 있는데 침구의 경우 <誦>하는 서적으로 『纂圖脈』 『和劑指南』 『銅人經』 등을 들고 있고, <臨文>하는 과목으로 『直指脈』 『鍼灸指南』 『子午流注』 『玉龍謠』 『針灸資生經』 『外科精要』 『十四經發揮』 『針經適英集』 등을 들고 있다.

5) 최용태, 「『東醫寶鑑』의 문헌적 연구」, 구암학보 Vol. 2. p 64

(1) 針灸資生經

중국 송나라 王執中이 편찬하여 1220년에 간행한 鍼灸書로서 전체 7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줄여서 『資生經』 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제1권은 인체 각 부분의 腧穴을 논하고, 부록으로 그림 46폭을 붙였으며, 제2권은 침구법을 논하였고, 제3~7권은 각종 질병의 鍼灸取穴로 되어 있다. 특히 침구취혈 부분은 각종 침구 문헌을 기본으로 질병의 치료를 논하고 거기에 저자 본인의 침구 임상 경험을 곁들여 기록하고 있다. 『針灸資生經』은 의료 실천을 중시하였으며, 灸法에 대하여도 비교적 상세히 기술하였다. 또 저자는 人神禁忌에 너무 엄매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고서 중의 일부 착오를 바로잡은 것도 눈에 띄는 점이다.⁶⁾

『東醫寶鑑』에서는 王執中이 적어놓은 자신의 침구임상경험을 주로 인용하고 있다. 그 내용이 醫案 형식을 빌리고 있는데 『東醫寶鑑』에서는 그것을 요약하여 간추려 놓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2) 世醫得效方

중국 원나라 危亦林的 편찬하여 1345년에 간행된 의방서이다. 전체 19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책은 편자가 그의 집안에서 5대째 내려오던 家傳醫方을 바탕으로 임상에서 사용하기 쉽게 편집하여 놓은 것이다. 그 내용 차례는 원나라의 醫學十三科에 의거하고 있다. 먼저 內, 外, 婦, 兒, 五官, 傷科 등 각 類 질병의 맥병 증치를 분별 설명하였고, 그 아래에 더 세밀하게 질병을 분류하고 있다.⁷⁾

특히 침구부분에서는 灸法을 위주로 하여 濫補하는 방법을 위주로 기술되어 있다. 『東醫寶鑑』에서도 『世醫得效方』의 뜸법이 미친 영향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3) 醫學綱目

중국 명나라 樓英이 지은 종합의서로 明·洪武13년(1380)에 완성되어 明·嘉靖44년(1565)에 초간본이 간행되었다. 그 내용과 분량이 방대하여 전체 40권에 이른다. 「陰陽臟腑部」 9권, 「肝膽部」 6권, 「心小腸部」 5권, 「脾胃部」 5권, 「肺大腸部」 2권, 「腎膀胱部」 2권, 「傷寒部」 4권, 「婦人部」 2권, 「小兒部」 4권, 「運氣部」 1권으로 나누어져 있다. 각 부에는 病證, 治法, 方藥이 구별되어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각 병증은 正門과 支門으로 나누고, 正門에서는 일반적인 병증의 개론을 설명하

6) 漢醫學大辭典編纂委員會, 『漢醫學大辭典』 p313 참조

7) 上掲書 p124 참조

고 支門에서는 하위 병증 및 특이 병증을 설명하여 논리적인 설명을 피하였다. 또 각 門은 上下로 나누었는데 上에는 內經의 原法을 싣고, 下에는 후대 의가들의 續法을 싣어 內經의 권위와 후대 의가들의 노력이 잘 드러나게 하였다.⁸⁾

『醫學綱目』에서는 여러 의가의 득실을 각 편마다 뚜렷이 밝히고 있어 초기 종합의서라고 부를만하다. 이런 방대하고 자세한 내용 때문에 후대에 많은 영향을 미쳤으며 이러한 의서형식 또한 후대 종합의서의 좋은 본보기가 되었다. 2002년 상해과학기술출판사에서 간행된 『중국의적대사전』⁹⁾ 「綜合性著作」 부분에서는 이 『醫學綱目』을 25번째로 언급하고 있는데, 29번째로 언급된 醫學入門과 42번째로 언급한 『東醫寶鑑』에 비해 앞선 저작이다. 또한 그보다 앞서 17번째로 언급된 東垣十書와 24번째로 언급된 古今醫統大全 등이 언급되어 있기는 하지만 『醫學綱目』에 비한다면 그 형식에 아직 갖추어지지 않은 점이 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東醫寶鑑』에서는 『醫學綱目』의 많은 부분을 인용하고 있다.

3. 『東醫寶鑑』 「內景篇」鍼灸法篇의 인용문 비교 및 특징 고찰

이제 실질적으로 『東醫寶鑑』 「內景篇」鍼灸法篇에 인용되어 있는 침구치료 내용을 원문과 대조, 비교하여 보고자 한다. 이러한 비교는 인용문헌을 찾아 단순히 확인하고 대조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다. 『東醫寶鑑』이 많은 침구내용을 기술하고는 있지만, 그 내용을 원문 그대로 따르지 않고, 원문과 다르게 많은 부분 변형·요약하고 있기 때문에 원문과의 비교를 통해 『東醫寶鑑』이 담고 있는 침구치료의 특징을 유추해 보기 위한 기초 작업이다. 이를 표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2 3 …, ① ② ③ …, ❶ ❷ ❸ … 등 번호로 이루어진 기호는 저자가 설명의 편의를 위해 순서대로 부여한 것이다.

1. 「身形·灸臍法」	
① 有人年老而顏如童子者 盖每歲以鼠糞 灸臍中一壯故也 (資生經)	❶ 『針灸資生經·虛損』舊傳有人 年老而顏如童子者 盖每歲以鼠糞 灸臍中一壯故也
② 本朝 韓雍 侍郎 討大藤峽 獲一賊 年逾百歲而甚壯健 問其由 曰少時 多病 遇一異人 教令每歲 灸臍中 自後康健 (彙言)	❷ 未詳 [彙言이 어떤 서적인지 밝혀져 있지 않다]

8) 중국의적대사전편찬위원회, 『중국의적대사전』, 2002, 상해과학기술출판사 p1492 참조

9) 2002년에 간행된 서적으로 중국의서를 각 내용별로 A~W의 코드로 나누고 시대순으로 나열하여 설명하고 있다. 「綜合性著作」은 U코드에 해당하며 모두 896개의 의서들이 속해 있다.

2. 「精·鍼灸法」	
<p>① 遺精 夢泄 心俞 白環俞 膏肓俞 腎俞 中極 關元 等穴 或鍼 或灸(綱目)</p>	<p>① 『醫學綱目·夢遺』 [《玉》] 遺精白濁 夜夢鬼交：心俞（一分 沿皮向外一寸半 先補後瀉 灸不宜多）白環俞（一寸半 瀉六吸 補一呼） [《撮》] 又法：白環俞（一寸半 灸五十壯 與中極相平）腎俞 中極（灸隨年壯） [《集》] 又法 腎俞 心俞 膏肓 關元 三陰（不已 取下穴）</p>
<p>② 失精 精溢 中極 大赫 然谷 大衝 等穴 皆主之(綱目)</p>	<p>② 『上同』 [《甲》] 丈夫失精 中極主之. 男子精溢 陰上縮 大赫主之. 男子精溢 脛酸不能久立 然谷主之. 男子精不足 太衝主之.</p>
<p>③ 虛勞失精 宜取 大赫 中封(綱目)</p>	<p>③ 『上同』 [《東》] … 虛勞失精 陰縮 莖中痛：大赫（三七壯）中封(灸)</p>
<p>④ 遺精五臟虛竭 灸曲骨端一穴 四七壯穴在前陰橫骨中央 曲如月中央是也(綱目)</p>	<p>④ 『上同』 [《華》] 遺精 五臟虛竭(東陽同)：曲骨端（四七壯 在陰橫骨中央曲如月 中央是也）</p>
<p>⑤ 便濁 失精 取腎俞 夢泄精 取三陰交各灸二七壯 神效(得效)</p>	<p>⑤ 『世醫得效方·痼冷』腎與膀胱俱虛 灸腎俞百壯. 穴在對臍兩邊向後夾脊相去各一寸五分. 兼治便濁失精 五臟虛勞 痼冷 小腹弦急. 夢泄精 三陰交二七壯 夢斷 神良. 穴在內踝上大脈并四指是. 諸虛極 灸膏肓俞 氣海穴 壯數愈多愈妙</p>
3. 「氣·鍼灸法」	
<p>① 一切氣疾 取氣海. 氣逆 取尺澤 商丘 太白 三陰交. 噫氣上逆 取太淵 神門. 短氣 取太陵 尺澤. 少氣 取間使 神門 太陵 少衝 足三里 下廉 行間 然谷 至陰 肝俞 氣海(神應)</p>	<p>① 『神應經·諸般積聚部』氣塊冷氣 一切氣疾：氣海. … 氣逆：尺澤 商丘 太白 三陰交. … 噫氣上逆：太淵 神門. … 短氣：太陵 尺澤. 少氣：間使 神門 太陵 少衝 三里 下廉 行間 然谷 至陰 肝俞 氣海</p>
<p>② 上氣 灸太衝 氣結 食不消 灸太倉 冷氣臍下痛 灸關元 百壯 短氣 灸大椎 隨年壯 肺俞 百壯 神闕二七壯 又灸第五椎下 隨年壯(得效)</p>	<p>② 『世醫得效方·諸氣』凡上氣冷發 腹中雷鳴轉叫 嘔逆不食 灸太衝 穴在足大指本節後二寸陷中 不限壯數 從痛至不痛 不痛至痛止 心腹諸病 堅滿煩痛 憂思結氣心痛 吐下食不消 灸太倉 穴在心下四寸 胃脘下一寸. 臍下攪痛 流入陰中 發作無時 此冷氣 灸關元百壯 穴在臍下三寸 及灸膏肓二穴. 短氣不語 灸大椎 隨年壯 又灸肺俞百壯 臍孔中二七壯. 乏氣灸第五椎下 隨年壯</p>
<p>③ 短氣 取天井 大椎 肺俞 肝俞 魚際 尺澤(甲乙)</p>	<p>③ 『醫學綱目·短氣』 [《東》] 短氣房勞：天井 大椎 肺腧 肝腧 尺澤(灸) [鍼灸甲乙經에 나와 있지 않음]</p>
<p>④ 氣亂于心 取神門 太淵</p>	<p>④ 『靈樞·五亂』氣在于心者 取之手少陰 心主之輸；氣在于肺者</p>

<p>氣亂于肺 取魚際 太谿 氣亂于腸胃 取太白 陷谷 三里 氣亂于頭 取天柱 大杼 通谷 束骨 氣亂于臂脛 取二間 三間 內庭 陷谷 液門 中渚 俠谿 臨泣(靈樞)</p>	<p>取之手太陰榮 足少陰輸；氣在于腸胃者 取之足太陰 陽明 不下者 取之三里；氣在于頭者 取之天柱大杼 不知 取足太陽榮輸；氣在于臂足 取之先去血脈 後取其陽明 少陽之榮輸。</p>
4. 「神·鍼灸法」	
<p>① 癲癇 晝發 治陽蹻(申脈) 夜發 治陰蹻(照海) 各灸二七壯(易老)</p>	<p>① 『醫學綱目·癲癇』 [潔] 晝發 治陽蹻 申脈二穴 在足外踝下陷中 容爪甲白肉際是也。夜發 治陰蹻 照海二穴 在足內踝下陷中是也。先灸兩蹻各二七壯 然後服前藥。</p>
<p>② 又灸百會 風池(資生)</p>	<p>② 『針灸資生經·癲疾』 有人患癲疾 發則僵仆在地 久之方蘇。予意其用心所致 爲灸百會 又疑是痰厥致僵仆 爲灸中管。其疾稍減 未除根也。後閱脈訣後通眞子有愛養小兒 謹護風池之說。人來覓灸癲疾 必爲之按風池穴 皆應手酸疼 使灸之而愈。</p>
<p>③ 癇病 取鳩尾 後谿 涌泉 心俞 陽交 三里 大衝 間使 上腕。 凡癇病必先下之 乃可灸 不然則氣不痛 能殺人 針不拘此(綱目)</p>	<p>③ 『醫學綱目·癲癇』 [《集》] 鳩尾 涌泉 心俞 [桑] 陽交 三里 後溪 太衝 間使 [《摘》] 風癇熱病 心風驚癇：上腕 三里 [《玉》] 癇(凡灸癇 必先下之 乃可灸。不然則氣不通 能殺人。針不拘) 鳩尾(必高手乃可下針 但宜灸亦不可多壯 多則令人健忘)</p>
<p>④ 癲狂 取豐隆 期門 溫留 通谷 築賓 陽谷 後谿 陰谷(甲乙)</p>	<p>④ 『醫學綱目·狂癲』 [《甲》] 狂癲疾吐舌 太乙及滑肉 期門主之。狂僕 溫溜主之。狂癲疾 陽谷及築賓 通谷主之。狂互引顛疾數發 後溪主之。狂癲 陰谷主之。</p>
<p>⑤ 又灸間使三十壯(得效)</p>	<p>⑤⑥ 『世醫得效方·心恙』 … 狂言恍惚 灸天樞百壯 其穴去肱腋一寸半 直臍傍二寸。… 狂邪發無常 被髮大映 欲殺人 不避水火及狂言妄語 灸間使三十壯 穴在腕後五寸 臂上兩骨間。</p>
<p>⑥ 又灸天樞百壯(得效)</p>	<p>⑦ 『醫學綱目·健忘』 [《集》] 健忘：列缺 心俞 神門 中腕 三里 少海(灸)</p>
<p>⑦ 健忘 取列缺 心俞 神門 中腕 三里 少海 又灸百會(綱目)</p>	<p>⑧ 『醫學綱目·狂』 [通玄] 呆痴：神門(一穴 沿皮向前三分 先補後瀉 灸之) 後溪(補生 瀉成) [標幽] 又法：大鐘。 [《集》] 失志呆痴：神門 中衝 鬼服 鳩尾 百會。</p>
<p>⑧ 失志痴騃 取神門 中衝 鬼眼 鳩尾 百會 後谿 大鐘(綱目)</p>	<p>⑨ 『醫學綱目·恐』 內經針灸善恐有三：其一取腎。經曰：腎足少陰之脈 是動病氣不足則善恐 心惕如人將捕之 虛則補之 寒則留之是也。其二取肝。經云：肝虛則目眈眈無所見 耳無所聞 善恐如人將捕之 取其經厥陰與少陽是也。其三</p>

	<p>取膽 經云：膽病者善太息 口苦 嘔宿汁 心下澹澹 恐人將捕之 取陰陵泉. 又云：善嘔 嘔有苦 善太息 心中憺憺 恐人將捕之 邪在膽 逆在胃 膽液泄則口苦 胃氣逆則嘔苦 故曰嘔膽. 取三里以下 胃氣逆則少陰血絡以閉膽逆 却調其虛實 以去其邪是也. [《甲》] 心如懸 哀而亂 善恐 噎內腫 心惕惕恐如人將捕之 多涎出 喘少氣 吸吸不足以息 然谷主之. 澹澹而善驚恐 心悲 內關主之. (《千金》作曲澤)</p>
<p>⑩ 心澹澹大動 取大陵 三里(綱目)</p>	<p>⑩ 『醫學綱目·心澹澹動』 澹澹 因痰動也. 心澹澹動者 謂不怕驚而心自動也. 驚恐亦曰心中澹澹恐 謂怕驚而心亦動也. 其澹澹自動之病 屬二經. 一屬心主手厥陰病. 經云：心主手厥陰之脈是動則病心中澹澹大動 面赤目黃 喜笑不休 視盛虛熱寒 陷下取之 是刺灸之法也. 又曰：太陽司天 寒淫所勝 病心澹澹大動 胸脇胃脘不安 治以甘熱. 是運氣之寒傷心主也. 其二屬少陽病. 經云：一陽發病 少氣善咳善噫 其傳為心掣是也. (掣 尺制反 曳也)</p>
<p>5. 「血·鍼灸法」</p>	
<p>① 衄吐血 下血取隱白 大陵 神門 大溪(易老)</p>	<p>① 『醫學綱目·諸見血門』 [潔] 衄血 吐血 下血 婦人下血不止： 隱白(五分灸) [東] 又法： 隱白 大陵 神門(各五分) 太溪(七分)</p>
<p>② 衄血灸額會 上星(資生)</p>	<p>② 『針灸資生經·鼻衄』 因閱集效方云 口鼻出血不止 名腦衄 灸上星五十壯. … 有人鼻常出膿血 予教灸總會亦愈. 則知總會 上星 皆治鼻衄云.</p>
<p>③ 衄宜灸大椎 瘕門即止(丹心)</p>	<p>③ 『醫學正傳·血證』 … 一方 用荊芥穗研服 或用蘿卜上半段榨汁服 又以汁滴入鼻竅中 或灸大椎及啞門穴二 三壯 俱可止之. [丹溪心法에는 보이지 않음]</p>
<p>④ 衄不止 以三稜針氣衝出血立愈(東垣)</p>	<p>④ 『醫學綱目·衄血』 [垣] 治血衄不愈. 以三稜針于氣衝上出血, 立愈. 更服此藥尤妙.</p>
<p>⑤ 衄血取上星 風府 瘕門 合谷 內庭 三里 照海(綱目)</p>	<p>⑤ 『醫學綱目·衄血』 [《摘》] 衄血： 啞門(三分) 合谷 內庭 [《密》] 又法： 啞門 三里(瀉) 照海(五分) [世] 又法： 三里外關(瀉) 重者風府. [《集》] 又法： 風府 上星 百勞 合谷 不已 取後穴： 迎香 人中 印堂. 口鼻出血不止： 上星灸 三報之.</p>
<p>⑥ 吐血取風府 大椎 賣中 上脘 中脘 氣海 關元 三里(綱目)</p>	<p>⑥ 『醫學綱目·吐血』 [《密》] 吐血： 風府 大椎 鬲俞 肝俞 (各五分. 瀉之立愈) [《集》] 又法： 賣中 中脘 氣海 三里 乳根 支溝 不已 取下穴： 肺俞 腎俞 心俞 膏肓 關元</p>
<p>⑦ 吐血灸大陵(得效)</p>	<p>⑦ 『世醫得效方·失血』 吐血 嘔逆 灸大陵 穴在掌後兩骨間是</p>
<p>⑧ 嘔吐取上脘 大陵 鄰門 神門(東垣)</p>	<p>⑧ 『醫學綱目·吐血』 [東] 嘔血 脇痛口干不可咳 引腎痛： 不容(傍刺向外) 上脘(三寸半) 大陵 鄰門 神門</p>

<p>⑨ 關脈扎 大便出血數斗者 以膈俞傷故也 宜灸膈俞(脈經)</p>	<p>⑨ 『脈經·平三關病候并治宜第三』關脈扎 大便去血數斗者 以膈俞傷故也. 宜服生地黄病生竹皮湯 灸膈俞. 若重下去血者 針關元; 甚者 宜服龍骨圓 必愈.</p>
<p>⑩ 虛勞出血 灸中脘三百壯 又吐血 唾血 灸肺俞隨年壯 又口鼻出血不止 名腦衄 灸上星五十壯(得效)</p>	<p>⑩ 『世醫得效方·失血』虛勞吐血 灸中脘三百壯. 吐血 唾血 上氣咳逆 灸肺俞隨年壯. 吐血 嘔逆 灸大陵 穴在掌後兩骨間是. 口鼻出血不止 名腦衄 灸上星五十壯 入髮際一寸. 衄不止 灸足大指節橫理三毛中十壯 劇者百壯 并治陰卵腫</p>
<p>⑪ 下血不止 量臍心與脊骨上灸七壯 卽止(資生)</p>	<p>⑪ 『針灸資生經·便血』陸氏續集驗方 治下血不止 量臍心與脊骨於脊骨上灸七壯 卽止. 如再發 卽再灸七壯. …</p>
<p>6. 「夢(睡眠)·鍼灸法」</p>	
<p>① 膽寒不得睡臥 取竅陰 沈困睡多 無名指第二節尖 屈指取之 灸一壯(綱目)</p>	<p>① 『醫學綱目·不得臥』〔《撮》〕膽寒不得臥:竅陰(一分 補之灸) / 『醫學綱目·多臥』〔《怪穴》〕困睡多:無名指第二節尖.(灸一壯 屈手指取之)</p>
<p>② 驚悸 不得眠 取陰交 不得臥 取浮郄(甲乙)</p>	<p>② 『醫學綱目·不得臥』〔《甲》〕驚不得眠 善齡 水氣上下 五臟游氣也 陰交主之. 不得臥 浮郄主之.</p>
<p>7. 「聲音·鍼灸法」</p>	
<p>① 卒然無音 取天突 ② 厥氣走喉不能言 取照海 ③ 喉痺卒音 取豐隆 ④ 暴瘖氣喘 取扶突 廉泉(靈樞)</p>	<p>①②③④ 『醫學綱目·暗』針灸 暗有三法: 其一取足少陰. 上二段經文是也. (黃帝曰:刺之奈何? 岐伯曰:足之少陰 上系于舌 絡于橫骨 終于會厭 兩瀉其血脈 濁氣乃辟. 會厭之脈 上絡任脈 取之天突 其厭乃發也. (夏惠無言篇)) 其二取足陽明. 經云:足陽明之別 名曰豐隆 去踝八寸 別走太陰 下絡喉嗑 其病氣逆 則喉痺卒暗 取之所別是也. 予治一男子四十九歲 久病痰嗽 忽一日感風寒 食酒肉 遂厥氣走喉 病暴暗 與灸足陽明豐隆二穴各三壯 足少陰照海穴各一壯 其聲立出 信哉聖經之言也. 仍用黃芩降火爲君 杏仁 陳皮 桔梗瀉厥氣爲臣 訶子泄逆 甘草和元氣爲佐 服之良愈. 其三取手陽明. 經云:暴暗氣哽 取扶突與舌本出血. 舌本 廉泉穴也.</p>
<p>⑤ 暴失音 取神門 涌泉(綱目)</p>	<p>⑤ 『醫學綱目·暗』〔《桑》〕卒暴失音:神門 涌泉.</p>
<p>⑥ 暴瘖 取合谷 陽交 通谷 天鼎 期門 支溝 涌泉(甲乙經)</p>	<p>⑥ 『醫學綱目·暗』〔《甲》〕暗不能言 合谷及涌泉 陽交主之. 〔《甲》〕食飲善嘔 不能言 通谷主之. 暴暗氣哽 喉痺咽痛不得息 飲食不下 天鼎主之. 暗不能言 期門主之. 暴暗不能言 支溝主之.</p>
<p>8. 「言語·鍼灸法」</p>	
<p>① 瘖不能言 取合谷 涌泉</p>	<p>① 『醫學綱目·暗』〔《甲》〕暗不能言 合谷及涌泉 陽交主之.</p>

<p>陽交 通谷 天鼎 期門 支溝(甲乙)</p>	<p>[《甲》] 飲食善嘔 不能言 通谷主之。暴暗氣哽 喉痺咽痛不得息 飲食不下 天鼎主之。暗不能言 期門主之。暴暗不能言 支溝主之。</p>
<p>② 足太陰之脈 病舌本強 不能言(靈樞 口問) 又手少陰之別脈 名曰通里 虛則不能言 取此穴(靈樞 經脈篇)</p>	<p>② 『醫學綱目·舌暗』 針灸 暗有二治：其一取脾。經云：脾足太陰之脈 是動 則病舌本強 視盛虛熱寒陷下取之也。其二取心。經云：手太陰之別 名曰通里 去腕一寸五分 別而上行 入于心中 系舌本 虛則不能言 取之掌後一寸是也。</p>
<p>③ 舌緩不能言 取瘰門 舌下腫難言 取廉泉(資生)</p>	<p>③ 『針灸資生經·口暗啞』 啞門一名舌橫 一名舌厭。督脈陽維之會 入系舌本 則是穴也 其舌本所系歟。凡舌緩不能言者 宜治此 / 『針灸資生經·口暗啞』 廉泉 一名舌本 蓋舌之根本也。故能治舌下腫 難言 舌縱涎出 舌根急縮諸病。與千金方所療略同。凡有此等疾者 宜鍼灸此</p>
<p>9. 「津液·鍼灸法」</p>	
<p>① 盜汗不止 取陰郄 瀉之(綱目)</p>	<p>① 『醫學綱目·刺灸通論』 [標幽賦] … 瀉陰郄 止盜汗并小兒骨蒸 …</p>
<p>② 汗不出 取曲差盜汗 取陰都 五里 間使 中極 氣海 虛損盜汗 取百勞 肺俞(甲乙)</p>	<p>② 『醫學綱目·無汗』 [《甲》] 汗不出 曲差主之。 / 『醫學綱目·盜汗』 [世] 盜汗：陰都 五里 間使。 [扁] 盜汗：中極 氣海。 虛損盜汗勞熱：百勞(三分 瀉三吸) 肺俞(四分 補三呼)</p>
<p>③ 傷寒汗不出 取合谷 復溜 俱瀉之大妙(綱目)</p>	<p>③ 『醫學綱目·無汗續法』 [《摘》] 傷寒在表 發熱惡寒 頭項痛 腰脊強 無汗 尺寸脈俱浮：合谷(五分 候遍身汗出即出針 此穴發汗大妙) 復溜(瀉)</p>
<p>10. 「痰飲·鍼灸法」</p>	
<p>① 諸般痰飲病 取豐隆 中脘。</p>	<p>④ 『醫學綱目·百病皆生于痰』 [《撮》] 諸痰爲病 頭風喘嗽 一切痰飲：豐隆 中脘。</p>
<p>② 胸中痰飲 吐逆不食 取巨闕 足三里(綱目)</p>	<p>⑤ 『醫學綱目·嘔』 [《摘》] 胸中痰飲 霍亂驚悸 腹脹暴痛 恍惚 吐逆不食：巨闕(六分) 三里(立愈)</p>
<p>③ 溢飲 取中脘。</p>	<p>⑥ 『醫學綱目·百病皆生于痰』 [《甲》] 溢飲 脇下堅痛 中脘主之。</p>
<p>④ 三焦停水 氣攻不食 取維道 中封 胃俞 腎俞(東垣)</p>	<p>⑦ 『醫學綱目·不能食』 [東] 三焦停水 氣攻不食 身黃微熱 胃中有寒故也：維道 中封 胃俞 腎俞。</p>
<p>⑤ 痰涎等疾 不一而足 惟勞瘵 有痰爲難治 最宜早</p>	<p>⑧ 『針灸資生經·痰涎』 痰涎等疾 不一而足。惟勞瘵有痰爲難治 最宜早灸膏肓穴 壯數既多 當有所下。嚙嚙然如 流水之狀 蓋痰下</p>

灸 膏肓穴 壯數既多 當有所下 嚙嚙然 如流水之狀者 是痰下也(資生)	也 余當隨證治之
五臟六腑 肝臟 心臟 脾臟 肺臟 腎臟 膽腑 胃腑 小腸腑 大腸腑 膀胱腑 三焦腑	
11. 「胞·鍼灸法」	
① 月水不調 取陰獨 中極 三陰交 腎俞 氣海(綱目)	① 『醫學綱目·調經』 [《心》] 月經不調：陰獨(三分 此穴大效 須待經定爲度 在足四指間三壯.) [《集》] 又法：中極 三陰交 腎俞 氣海
② 月經斷絕 取中極 三陰交 腎俞 合谷 四滿 三里(綱目)	② 『醫學綱目·經閉』 [《摘》] 經脈不通(《心術》同：)曲池 支溝 三里 三陰交(此四穴壅塞不通則瀉之 如虛耗不行則補之.) [《集》] 月經斷絕：中極 三陰交 腎俞 合谷. [東] 又法：四滿(在丹田傍一寸半)
③ 崩漏不止 取血海 陰谷 三陰交 行間 大衝 中極(綱目)	③ 『醫學綱目·血崩』 [《摘》] 經血過多不止并崩中(《心術》同) 三陰交 行間(各針訖灸之) 通里(足小指上二寸 刺二分 灸二七壯) [桑] 漏下不止(《心術》《摘英》同：) 三陰交 太衝 [《集》] 血崩并漏下：中極(補) 子宮(二寸半) 敗血不止：三陰交 百勞 風門 中極 腎俞 膏肓 曲池 絕骨
④ 赤白帶 取中極 腎俞 氣海 三陰交 章門 行間.	④ 『醫學綱目·調經』 [《集》] 又法：中極 三陰交 腎俞 氣海 [針灸資生經에는 보이지 않음]
⑤ 赤白帶 帶脈穴灸之 最奇. 一女 患此 灸此穴 鬼附身云 灸着我 我即去 俄而即差(資生)	⑤ 『針灸資生經·赤白帶』… 若灸帶脈穴 尤奇於此丹[鎮靈丹]也. 有婦人患赤白帶 林親得子鍼灸經 初爲灸氣海穴未效 次日 爲灸帶脈穴 有鬼附身云 昨日灸亦好 只灸我未着 今灸攻我 我今去矣 可爲酒食祭我 其家如其言祭之 其病如失 此實事也. …
⑥ 崔氏四花穴 治帶下如神(綱目)	⑥ 『醫學綱目·赤白帶』崔氏四花穴 治赤白帶如神.
⑦ 赤帶 取中極 氣海 委中 ⑧ 白帶 取曲骨 承陰 中極(綱目)	⑦⑧ 『醫學綱目·赤白帶』 [桑] 赤帶(《心術》如下赤帶不已 漸漸如蠱 亦用此法：)氣海(六分) 中極 委中(各五分) 白帶(《心術》如下白帶不已 漸漸如蠱 亦用此法：) 曲骨 承陰(各七分)中極(在兩傍柱骨下六分)
⑨ 經斷久忽大崩下 取豐隆 石門 天樞 中脘 氣海(綱目)	⑨ 『醫學綱目·調經』 [《心》] 經閉久 忽大崩 復又斷絕 復又大行不調者：豐隆(六分 止血) 石門(五分 斷經) 婦人五旬 經斷後再行 或多或少 或瘀或紅 并下腹中氣滿如胎孕：天樞 中脘 氣海(各五分 立愈)
12. 「蟲·鍼灸法」	
① 骨蒸 傳尸 勞瘵 宜早	① 『醫學入門·鍼灸·治病奇穴·經門四花』又云 虛損勞瘵 只

<p>灸崔氏四花穴晚則無及矣(入門)</p>	<p>宜早灸膏肓四花 乃虛損未成之際. 如瘦弱兼火 雖灸亦只宜灸內關三里 以散其痰火 早年欲作陰火不宜灸 論而未果 今見傷寒提綱.</p>
<p>② 療蟲 居肺間 蝕肺系咯血 聲嘶 此所謂膏之上育之下 鍼之不到 藥之不及 宜早灸膏肓 肺腧 四花穴為佳(入門)</p>	<p>② 『醫學入門·雜病分類·虛類·諸蟲』居肺咯血必損聲 勞蟲雖分五臟 嘗居肺間 正所謂膏之上 育之下 針之不到 藥之不行 只宜早灸膏肓 四花 為佳.</p>
<p>③ 治勞瘵 癸亥夜三更 六神皆聚之時 解去上體衣服於腰上兩傍 微陷處謂之腰眼 直身平立 以筆點 然後上床 合面而臥 每灼小艾炷灸七壯 蟲或吐出 或瀉下 即安 名曰 遇仙灸(得效)</p>	<p>③ 『世醫得效方·勞瘵』 癸亥夜二更 六神皆聚之時 解去上體衣服 於腰上兩傍微陷處 謂之腰眼 直身平立 以筆點定 然後上床合面而臥 每灼小艾炷灸七壯 蟲或吐出或瀉下 即安</p>
<p>④ 先一日點定腰眼穴 至半夜子時 交癸亥日 期便灸七壯 或九壯 或十一壯 尤妙 其蟲大便出 即焚之(醫鑿)</p>	<p>④ 『古今醫鑑·虛勞』神灸法 治傳尸勞虫. 于癸亥日灸兩腰眼 低陷中是穴. 每穴灸艾七炷 若灸九炷 十炷尤妙. 先隔一日前点穴方睡至半夜子時 一交癸亥日期 便灸. 其虫從大便中出 即用火焚之 棄于江河中.</p>
<p>⑤ 骨蒸勞熱 灸膏肓 三里.</p>	<p>⑤ 『醫學綱目·勞瘵骨蒸熱』 [《撮要》] 治骨蒸勞熱: 膏肓(在四椎下 五椎上各開二寸 灸百壯. 詳見刺法門) 三里.</p>
<p>⑥ 勞瘵骨蒸或板齒乾燥 大椎 鳩尾各灸二十七壯又膏肓 肺腧 四花 大椎等穴 若灸之早 百發百中.</p>	<p>⑥ 『醫學綱目·勞瘵骨蒸熱』 [潔] 治骨蒸熱不可治者 或前板齒干燥: 大椎. [《撮要》] 又法: 鳩尾(灸二十七壯, 補之) 上背俞取膏肓 肺俞 四花穴 大椎等穴. 治勞瘵者 皆為陽氣下陷而寒熱往來也 若灸之早 百發百中 累試有效.</p>
<p>⑦ 傳尸 勞瘵涌泉鍼三分 瀉六吸 有血可治 無血必危 豐隆治痰 針入一寸 瀉十吸 丹田治氣喘 鍼入三分 補二呼已上(入門)</p>	<p>⑦ 『醫學綱目·勞瘵骨蒸熱』 [《玉龍》] 傳尸勞: 涌湧泉(第二足指端量至根盡折中是 針三分 瀉六吸 傷寒及勞瘵之症 有血可治 無血必危 凡欲出血 刺入二分 便須彈指) 豐隆(此穴治痰 針入一寸 瀉十吸) 丹田(此穴治氣喘 針入三分 補二呼) [醫學入門에는 보이지 않는다]</p>

<p>13. 「小便·鍼灸法」</p>	
<p>① 癃閉 取陰驕 即照海 大敦 委陽 大鍾 行間 委中 陰陵泉 石門.</p>	<p>① 『醫學綱目·小便不通』 《內經》刺灸小便不利法有五: 其一取肝. 經云: 肝足厥陰之脈 所生病者癃閉. 又云: 小腹滿 身寒熱 小便不利 取足厥陰. 又云: 癃取陰驕及三毛 上及血絡出血是也. 其二取三焦. 經云: 三焦病者 腹氣滿 小腹丸堅 不得小便 窘急</p>

	<p>溢則水流即爲脹候 在足太陽之外大絡 大絡在足太陽少陽之間 亦見于脈 取委陽. 又云:小腹痛腫 不得小便 邪在三焦 約取之太陽大絡 (大絡 委陽)視其絡脈 與厥陰小絡結而血者(當有取之二字)是也.</p> <p>其三取腎絡. 經云:足少陰之別 名曰大鐘 當踝後繞跟 別走太陽. 其病實則癰閉 取之所別也.</p> <p>其四取脾. 經云:足太陰之脈所生 病者溇泄水閉 視虛實寒熱陷下 而施補瀉疾留灸也.</p> <p>其五雜取. 經云:內閉不得洩 刺足少陰太陽與臍骨上 以長針 氣逆則取其太陰 陽明 厥陰 甚則取少陰 陽明 動者之經也.</p>
② 小便淋閉 關元 三陰交 陰谷 陰陵泉 氣海 太谿 陰交(綱目)	<p>②『醫學綱目·小便不通』〔《摘》〕(內陰谷出《密語》) 關元(八分 令病人覺淋瀝三五次爲度 便揉小腹 却取下穴) 三陰交(三分即透) 陰谷 〔《撮》〕小便閉數不通:陰谷(一寸五分 灸) 陰陵泉(瀉之) 〔《集》〕小便閉不通:陰陵泉 陰谷 三陰交 氣海 關元(灸三十壯 刺二寸五分) 不已 取下穴:太溪 陰交</p>
③ 石淋取 關元 氣門 大敦(東垣) ④ 血淋 取氣海 關元(東垣) ⑤ 熱淋 陰陵泉 關元 氣衝(東垣)	<p>③④⑤『醫學綱目·小便不通』〔東〕熱淋 小便黃 腹滿:陰陵泉 關元(各二寸) 氣衝(二七壯) 石淋不得小便: 關元(三七壯) 氣門 大敦(各二七壯) 血淋:氣海 丹田(各刺灸三七壯)</p>
⑥ 小便滑數 中極灸 腎俞 陰陵泉 氣海 陰谷 三陰交(綱目)	<p>⑥『醫學綱目·小便數』〔《集》〕小便滑數:中極(灸)腎俞 陰陵泉(不已 取下穴) 氣海 陰谷 三陰交</p>
⑦ 遺尿不禁 陰陵泉 陽陵泉 大敦 曲骨(東垣)	<p>⑦『醫學綱目·遺溺』〔東〕遺尿失禁:陰陵泉 陽陵泉(二寸半) 大敦(七壯) 又方:曲骨 陰陽二陵泉(各二寸半)</p>
⑧ 莖中痛 行間灸三十壯 又取中極 太谿 三陰交 復溜(資生)	<p>⑧『針灸資生經·陰莖疼』莖中痛 灸行間三十壯 / 『醫學綱目·陰臭陰腫陰痛陰吹』〔《集》〕陰莖虛痛:中極 太溪 三陰交 復溜 不已 取血郄 陰陵泉 關元 海底</p>
⑨ 白濁 腎俞灸 又取章門 曲泉 關元 三陰交(綱目)	<p>⑨『醫學綱目·夢遺』〔《集》〕又法 腎俞 心俞 膏肓 關元 三陰(不已 取下穴) 〔東〕腰脊冷 溺多白濁 失精:脾募(三七壯) 曲泉(灸)</p>
⑩ 婦人轉脬不得尿取曲骨 關元(甲乙)	<p>⑩『醫學綱目·胎前淋閉』〔《甲》〕小便難 水脹滿 溺出少 胞轉 不得溺 曲骨主之. 胞轉不得小便 小腹滿 關元主之.</p>
14. 「大便·鍼灸法」	
① 大渴飲水 多爲滑泄 水	<p>①『醫學綱目·泄瀉』〔羅〕治水漬入胃爲溢飲滑泄 渴能飲水</p>

<p>入則泄 泄而復飲 此無藥 當灸大椎三五壯(易老)</p>	<p>水下復泄 泄而大渴 此無藥症 當灸大椎.</p>
<p>② 泄瀉三五年不愈 灸百 會五七壯 即愈(醫鑿)</p>	<p>② 『古今醫鑑·泄瀉』治吐瀉日久 胃氣大虛 死在旦夕. 天樞二穴 (在臍旁各開二寸) 氣海(在臍下一寸半) 百會(在頂心中) 用艾灸五 七壯 即愈</p>
<p>③ 久泄痢 灸天樞 氣海 大能止泄(丹溪)</p>	<p>③ 『丹溪心法·痢』其如或久痢後 體虛氣弱 滑下不止 又當以藥 澁之 訶子 肉豆蔻 白礬 半夏 甚者添牡蠣 可擇用之. 然須用陳皮 為佐 恐太澀亦能作痛. 又 甚者 灸天樞 氣海</p>
<p>④ 泄痢不止 灸神厥七壯 一云三壯 關元三十壯(得 效)</p>	<p>④ 『世醫得效方·泄瀉』泄痢不止 灸臍中名神闕穴 五壯或七壯 艾柱如小筋頭大 及關元穴 三十壯 其穴在臍下三寸</p>
<p>⑤ 溇泄 灸臍中 為第一 三陰交 次之(資生)</p>	<p>⑤ 『針灸資生經·溇泄』若灸溇泄 臍中第一 三陰交等 乃其次</p>
<p>⑥ 泄痢 灸脾俞 隨年壯 臍中二十壯 關元百壯 三 報二七壯(得效)</p>	<p>⑥ 『世醫得效方·下痢』泄痢不消 不作肌膚 灸脾俞隨年壯 其穴 在十一椎下兩方各去一寸半. 泄痢不禁 小腹絞痛 灸丹田百壯 其 穴在臍下一寸. 又灸臍中二十壯 關元穴百壯 泄痢不嗜食 雖食不 消 灸三報 穴在俠臍相去五寸 一名循際</p>
<p>⑦ 飧泄 取陰陵泉 然谷 居虛 上廉 大衝 (綱目)</p>	<p>⑦ 『醫學綱目·飧泄』刺灸 飧泄有三法： 其一取脾. 經云：脾虛則腹滿腸鳴 泄食不化 取其經足太陰 陽明. 又云：飧泄 取三陰之上 補陰陵泉 皆久留之 熱行乃止. 又云：飧 泄 取三陰者是也. 三陰者 太陰也. 其二取腎. 經云：腎藏志 志有余 腹脹 飧泄瀉 然筋血者是也. 然 筋 謂然骨 視血絡盛則泄之. 其三取肝. 經云：肝足厥陰之脈 所生病者 胸滿 嘔逆 飧泄是也 視盛虛寒熱陷下施法也. 渴飲水多 水谷一時下者 灸大椎三五壯 立已. (詳見大法條) 〔《甲》〕飧泄大腸痛 巨虛 上廉主之. 又 太衝主之.</p>
<p>⑧ 泄瀉如水 手足冷 脈欲 絕 臍腹痛 漸漸短氣 灸氣 海百壯(得效)</p>	<p>⑧ 『世醫得效方·泄瀉』薑附湯 治下泄如水 或青或白 臍腹痛 手足冷 脈細欲絕 漸漸短氣. 由陽氣暴節 為陰所迫 則注下不止 陽復則生 不復則死. 又不止 灸氣海百壯. 傷寒虛證 瀉亦效(方 見中寒類)</p>
<p>⑨ 下痢腹痛 便膿血 取丹 田 復溜 小腸俞 天樞 腹 哀(東垣) ⑩ 冷痢 關元 窮谷各灸五 十壯(東垣)</p>	<p>⑨ 『醫學綱目·滯下』〔東〕泄痢不禁 小腹痛 後重 便膿血：丹 田(一寸半) 復溜 小腸俞(灸七壯)不已 取：天樞 腹哀(胃下一寸 五分) ⑩ 冷痢腹痛 泄注赤白：關元 窮谷(各灸五十壯) 泄痢及下 矢氣膿血：下腰(五十壯 穴在八魁正中央 脊骨上 灸 名三宗骨 三報之)便膿血 久痢下重：小腸俞(灸)</p>

⑪ 裏急後重 取合谷 外關(東垣)	⑪ 『醫學綱目·滯下』 [世] 裏急後重：合谷 外關
⑫ 痢不止 取合谷 三里 陰陵泉 中脘 關元 神厥 中極(綱目)	⑫ 『醫學綱目·飧泄』 [世] 又法：合谷 三里 陰陵泉 不應 取下穴：中脘 關元 天樞 神闕
⑬ 諸下痢皆可灸大都五壯 商丘 陰陵泉各三壯(綱目)	⑬ 『醫學綱目·飧泄』 [《脈》] 諸下痢 皆可灸足大都五壯 商丘 陰陵泉皆三壯.
⑭ 大便秘澀 取照海 鍼入五分 補三呼 瀉六吸 立通 支溝鍼半寸三吸 太白瀉之(綱目)	⑭ 『醫學綱目·大便不通』 [《玉》] 大便秘塞：照海(五分. 補二呼；瀉 六吸 立通) 支溝(半寸 瀉三吸) [《撮》] 又法：照海(瀉之立通) 太白(瀉之 灸亦可)
⑮ 大便不通 取三間 承山 太白 太鐘 三里 湧泉 崑崙 照海 章門 氣海(綱目)	⑮ 『醫學綱目·大便不通』 [《集》] 又法：照海(半寸 灸二十壯 瀉之) 章門(灸 二七壯) 太白(半寸 灸五壯. 以上諸穴看虛實補瀉之 虛結補則通 熱結瀉則通. 寒結先瀉後補 熱結先補後瀉之) [《摘》] 又法：氣海(八分 令病人覺便三五次爲度. 出針時記令人挾臍揉之 却刺三里) 三里(五分 覺腹中鳴三五次即透) [《摘》] 治大便不通 并傷寒水結：三間(沿皮下向至合谷穴 三補三瀉 候腹中通出針)承山(七分 瀉之) [《甲》] 大便難. 中渚及太自主之. 又大鐘主之.
⑯ 大小便不通 取大都 環崗 水道(綱目)	⑯ 『醫學綱目·大小便不通』 [桑] 大小便不通：大都(七分) [東] 大小便難：環崗(在小腸俞下二寸 橫紋間灸取之) 水道(二十壯) 榮衛(在背脊四面各一寸八分 腰眼下三寸 挾脊相去四寸 兩邊各四穴 灸十壯至百壯. 或云此穴未詳) [《甲》] 三焦約 大小便不通 水道主之.
⑰ 關格吐逆 而小便不通 先灸氣海 天樞各三七壯 止然後 用益元散 以利小便(正傳)	⑰ 『醫學正傳·淋閉(附：關格)』 治關格證吐逆而小便不利 急宜先灸氣海 天樞等穴各三七壯 其吐必止 然後以益元散等藥以利小便.
⑱ 婦人產後 腹脹 大小便不通 取氣海 足三里 關元 三陰交 然谷(綱目)	⑱ 『醫學綱目·產後大小便不通』 [《心》] 治婦人產後 忽小腹脹如蠱 大小便不通. 氣海 三里 關元 三陰交 陰谷主之.
대조작업에 쓰인 판본	[]안의 글은 저자의 주석임.
대조작업에 쓰인 판본	許浚, 『東醫寶鑑』 영인본, 남산당, 1998 李梴, 『醫學入門』 영인본, 고려의학, 1989 『黃帝內經』, 반룡, 2000 虞搏, 『醫學正傳』, 중의고적출판사, 2002 朱震亨, 『丹溪心法』, 인민위생출판사, 1993

龔信, 『龔廷賢 醫學全書·古今醫鑑』, 중국중의약출판사, 1999
陳會, 『神應經』, 중국고적출판사, 2000
危亦林, 『世醫得效方』, 의성당, 1990
樓英, 『醫學綱目』, 중국중의약출판사, 1998
皇甫謐, 『鍼灸名著集成·鍼灸甲乙經』, 화하출판사, 1997
王執中, 『鍼灸名著集成·針灸資生經』, 화하출판사, 1997

(1) 鍼灸甲乙經 인용부분에 대한 고찰

『東醫寶鑑』 鍼灸法篇의 많은 내용은 『鍼灸甲乙經』을 인용한 것이다. 그러나 『鍼灸甲乙經』을 직접 인용하기 보다는 『醫學綱目』에 인용된 『鍼灸甲乙經』내용을 재인용하고 있다. 그 근거로는 크게 세 가지 경우를 들 수 있는데 이는 『東醫寶鑑』의 인용 형식이기도 하다. 1) (甲乙) 혹은 (甲乙經)¹⁰⁾이라고 하였지만 『醫學綱目』의 『鍼灸甲乙經』인용부분이나 다른 서적의 인용 부분을 재인용한 부분, 2) (綱目)으로 되어 있으나 『醫學綱目』의 『鍼灸甲乙經』인용부분을 재인용한 부분, 3) 『鍼灸甲乙經』의 주치가 같은 많은 수혈들 가운데 『醫學綱目』에서 언급한 혈들만을 인용한 부분 등이 그것이다.

1)의 예로 3-③ 短氣를 들 수 있다. 『東醫寶鑑』에는 『鍼灸甲乙經』에서 인용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정작 『鍼灸甲乙經』에는 이러한 조문이 보이지 않는다. 이 침구법은 3-③에서 보는 것과 같이 『醫學綱目』에 언급되어 있으며 [東] 11)이 원저임을 알 수 있다. 또 9-② 汗不出도 (甲乙)이라고 되어있지만 실은 『鍼灸甲乙經』 외에 두 가지 서적을 함께 인용한 것으로서 『醫學綱目』을 재인용한 조문이다.

2)의 예로는 4-⑨ 善恐을 들 수 있다. 이 조문은 (綱目)으로 되어있지만, 조문의 然谷 內關은 『醫學綱目』에 실려 있는 『鍼灸甲乙經』인용 부분을 재인용한 것이고, 그 뒤의 陰陵泉 俠谿 行間은 『醫學綱目·恐』 “內經針灸善恐有三…” 부분을 인용한 것으로서 각기 다른 부분을 인용한 것이다. 또 2-②¹²⁾ 失精의 경우에도 『醫學綱目』에서 인용되어 있다고 했는데, 2-②의 『醫學綱目』은 [《甲》]을 인용하고 있어 『醫學綱目』의 『鍼灸甲乙經』부분을 재인용한 것이다.

10) 『東醫寶鑑』에서 인용문 표시 형식

11) 5-⑧과 5-⑧의 대조를 통해 『醫學綱目』의 [東]이 『東醫寶鑑』의 (동원)과 같은 의미임을 알 수 있다.

12) 2-②는 2. 「精·鍼灸法」 ② 失精 精溢. 中極 大赫 然谷 大衝 等穴 皆主之(綱目)를 나타내는 기호로 약속한다.

3)의 예로는 4-④ 癲狂의 경우를 들 수 있다. 『鍼灸甲乙經』에서 癲狂에 관련된 내용은 『鍼灸甲乙經卷之十一·陽厥大驚發狂癩第二』에 기술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風府 強間 腦戶 天柱 肝俞 太淵 등 많은 치료혈 들을 소개되어 있다. 그러나 4-④에서는 4-④ 『醫學綱目』에서 언급한 수혈만을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이것을 볼 때 『東醫寶鑑』鍼灸法篇에서 (甲乙) 혹은 (甲乙經)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대부분 『醫學綱目』에서 인용한 『鍼灸甲乙經』을 재인용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 특이할만한 것으로 7-⑥과 8-①을 들 수 있다. 7-⑥과 8-①은 모두 『醫學綱目·疔』의 『鍼灸甲乙經』 인용 부분을 재인용 한 것으로 출전이 같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인용된 모습은 7-⑥ “暴瘡 取合谷 陽交 通谷 天鼎 期門 支溝 涌泉(甲乙經)”과 8-① “瘡不能言 取合谷 涌泉 陽交 通谷 天鼎 期門 支溝(甲乙)”로 서로 다르다. 7-⑥은 聲音의 입장에서, 8-①은 言語의 입장에서 같은 출전을 다르게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2) 東垣十書 인용부분에 대한 고찰

우선 5-⑧과 5-⑧의 대조를 통해 『醫學綱目』의 [東] 이 『東醫寶鑑』의 (동원)과 같은 의미임을 알 수 있다. 2-③ 虛勞失精에서 강목을 인용하고 있다고 했는데, 2-③의 『醫學綱目』에서는 [東]을 인용하고 있다고 기술되어 있다.¹³⁾ 또 반대로 14-⑪ 은 (東垣)이라고 되어 있으나 실은 『醫學綱目·滯下』에서 인용한 것이다. 이를 볼 때 『東醫寶鑑』에서 (東垣)의 침구법을 인용하고 있는 부분은 대부분 『醫學綱目』을 출처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世醫得效方 인용부분에 대한 고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世醫得效方』의 침구법은 灸法을 위주리한 溫補法이 주류를 이룬다. 『東醫寶鑑』鍼灸法篇을 살펴보다보면 주로 氣海 丹田 關元 혈을 중심으로, 땀을 “百壯”, “三七壯”, “隨年壯” 뜨는 방법들이 보이는데, 대부분 『世醫得效方』에서 인용한 치료법들이다. 2-⑤ 尿濁失精, 4-⑤⑥ 癲癩, 5-⑦ 吐血, 5-⑩ 虛勞出血, 14-⑧ 泄瀉 등이 그러한 예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氣門의 3-①과 3-②를 비교해 보자. 양자 모두 氣疾, 氣結, 氣逆, 短氣, 少氣 등 氣病을 주 증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치료 방법은 전혀 다르다. 3-①의 경우는 太陰

13) 『東垣十書』에는 보이지 않는다

經 少陰經 厥陰經 등 경락에 중심으로 4~5개의 혈자리에 자침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는 반면, 3-②에서는 하나 혹은 두 개의 혈에 뜸을 여러 장 뜨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게다가 3-②의 ‘上氣冷發’, ‘嘔逆不食’등의 언급으로 보아 기본적으로 허증을 전제로한 치료법임을 알 수 있다. 요컨대 똑같은 氣病을 치료함에 있어서 3-①(神應經)과 3-②(世醫得效方)의 대비를 통해 경우에 따라서 침과 뜸을 골고루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한편 『世醫得效方』에는 치료혈과 함께 혈자리도 같이 설명하고 있는데 『東醫寶鑑』에서는 이를 생략하고 있다.

(4) 針灸資生經 인용부분에 대한 고찰

『針灸資生經』에는 여러의서들의 다양한 침구치료법이 실려 있지만 『東醫寶鑑』에는 王執中이 직접 기술한 醫案이나 醫論을 중심으로 인용하고 있다.

4-② 癲疾은 마치 4-①의 부연인 듯 간략해 보이지만, 4-②에서 보여주듯이 원래는 왕집중이 癲疾 환자를 치료한 한 편의 침구의안을 인용한 조문이다. 이러한 예는 5-② 衄血, 5-① 下血에서도 보인데, 모두 비교적 긴 의안을 짧고 간략하게 간추리고 있다.

한편 8-③ 『針灸資生經』에서는 왕집중이 啞門, 廉泉 두 수혈의 의미를 다시 밝히면서, 이들 수혈들이 혀가 늘어지거나 붓는 증상에 응용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이는 왕집중의 醫論으로 『東醫寶鑑』에서는 이를 8-③과 같이 인용하고 있다.

이러한 예들을 통해 『東醫寶鑑』에서는 『針灸資生經』에 쓰여 있는 王執中の 鍼灸醫案과 鍼灸醫論을 수혈 중심으로 요약하여 인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5) 黃帝內經 인용부분에 대한 고찰

『東醫寶鑑』 鍼灸法篇에서는 內經의 의론을 많이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또한 『醫學綱目』에서 이미 병증별로 나누어 인용한 것을 재인용한 것이다. 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자.

(6) 醫學入門 인용부분에 대한 고찰

『東醫寶鑑』 「內景篇」 鍼灸法篇 가운데 『醫學入門』에서 인용하고 있는 부분은 12 蟲 부분에 국한되어 있다. 蟲에 대한 『東醫寶鑑』의 인식이 『醫學入門』에서 영향 받은 것이 아닌가 한다. 이에 대해서는 다른 연구가 필요하겠다.

다만 12-⑤⑥⑦은 입문이 아니라 『醫學綱目』에서 인용된 부분이다.

(7) 『醫學綱目』 인용부분에 대한 고찰

『東醫寶鑑』 「內景篇」 鍼灸法篇의 대부분은 『醫學綱目』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또 인용시에는 1) 되도록 많은 치료법들을 간략하게 제시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2) 內經에 언급되고 있는 침구 치료 방법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1)처럼 여러 침구법들을 다양하게 인용하려 했던 예로는 2-①① 遺精夢泄에 대한 치료를 들 수 있다. 『醫學綱目』에서는 [《玉》], [《撮》], [《集》] 등 세 서적에서 인용한 부분인데, 『東醫寶鑑』에서는 이것을 한데 묶어 “遺精 夢泄 心俞 白環俞 膏肓俞 腎俞 中極 關元 等穴 或鍼 或灸.”라고 요약하고 있다. 즉 『東醫寶鑑』 침구법의 이 한 조문은 <心俞 白環俞>, <白環俞 腎俞 中極>, <腎俞 心俞 膏肓 關元>의 각기 다른 출전을 가진 遺精 夢泄의 치료혈 들로 구성된 것이다. 이러한 예들은 4-③ 癲癇, 4-⑧ 失志痴騃, 5-⑥ 吐血, 6-① 不得臥, 13-② 小便淋閉, 15-⑮ 大小便不通 등에서도 공통적으로 드러난다.

한편 2)에서처럼 『東醫寶鑑』에서는 內經의 침구치료 내용을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미 『醫學綱目』에서 각 편에 흩어져 있는 內經의 침구 치료법을 각 병증에 맞추어 잘 정리해 놓고 있는데 『東醫寶鑑』에서는 이를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다. 『醫學綱目』에서 臟腑와 經絡을 위주로 되어있는 설명들을 구체적인 俞穴을 위주로 풀어내어 실용적으로 임상에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3-④의 경우, 『靈樞·五亂』에 나와있는 개괄적인 설명을 풀어서 실제 수혈로 바꾸어 설명하고 있다. 『靈樞』에서 “氣在于心者 取之手少陰 心主之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氣亂于心 取神門 太淵”으로 바꾸고, “手太陰榮 足少陰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氣亂于肺 取魚際 太谿”이라고 고쳐 적고 있다. 이를 통해 『東醫寶鑑』 역시 內經의 침구이론을 중요시 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보다 실용적인 응용을 시도 하였다고 생각된다. 4-⑨ 善恐, 4-⑩ 心大動, 7-①②③④ 瘡癩, 8-② 舌暗, 13-① 小便不利, 14-⑦ 殮泄 등도 그러한 예들이다.

이처럼 구체적인 수혈을 제시하여 실용성을 강조한 흔적은 13-④의 경우에도 드러난다. 『醫學綱目·小便不通』에서는 “血淋：氣海 丹田”이라고 언급하고 있으나 『東醫寶鑑』 조문에는 “血淋 取氣海 關元”라고 인용하고 있다. 추상적인 “丹田”이라는 표현을 피하고 “關元”이라는 구체적인 수혈을 제시하

고 있다. 또한 이로 보아 단전을 관원혈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10 답음의 치료법은 흥미롭게도 서로 다른 문의 침구법을 인용하고 있다. 10-①은 『醫學綱目·百病皆生于痰』, 10-②는 『醫學綱目·嘔』, 10-③은 『醫學綱目·百病皆生于痰』, 10-④는 『醫學綱目·不能食』 등에서 인용하고 있어 痰飲이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병증을 중심으로 인용했음을 알 수 있다. 또 13-⑧의 경우는 하나의 조문이지만 『針灸資生經』과 『醫學綱目』을 함께 인용하고 있어 특징적이다.

한편 5-⑤ 衄血, 5-⑥ 吐血의 경우에는 『醫學綱目』에서 인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인용이 부분이 쉽게 눈에 띄지 않을 만큼 변형되어 있다. 이렇게 인용시에 변형과 첨삭이 많은 조문은 이곳 말고도 여러 곳에서 보이는데, 왜 이렇게 변형·발췌하여 인용하였는지는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다. 다만 자주 언급되고 주요한 혈들을 앞으로 옮겨 적고, 그렇지 않은 혈들을 뒤로 적으려는 의도만을 읽을 수 있을 뿐이다.

(8) 기타 인용서적 인용부분에 대한 고찰

5-③의 경우에는 (丹溪)라고 적고 있지만 『丹溪心法』에는 보이지 않는다. 『醫學正傳·血證』에서 찾을 수 있었다. 14-③의 경우에는 『丹溪心法』과 『醫學正傳』 모두에서 보인다. 또 이와 연관된 조문이 『東醫寶鑑·久痢』에도 보인다.¹⁴⁾

Ⅲ. 結 論

『東醫寶鑑』은 韓醫學 역사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되는 저작이다. 그러한 까닭에 『東醫寶鑑』의 역사적 철학적 배경이나, 형성과정, 내용상의 특성, 저자인 許浚의 생애에 대해서는 비교적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조선 중기 침구학의 특성을 보여주는 「鍼灸篇」과 鍼灸法篇에 대해서는 그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의식의 시작으로 본 논문을 준비하게 되었다.

14) 『東醫寶鑑·久痢』痢已減十之七八穢積已盡糟粕未實當以炒芍藥炒白朮灸甘草陳皮茯苓煎湯下固腸丸三十粒然此丸性燥若滯氣未盡不可用<丹心>○久痢體虛氣弱滑泄不止當以訶子肉豆蔻白礬半夏等藥澁之甚者添牡蠣須以陳皮爲佐恐太澁亦能作疼也<丹心>

東醫寶鑑 鍼灸法篇에 인용된 침구서적 가운데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저작은 明初에 해당하는 책들이다. 그 이유는 명나라 시기에 와서 침뜸의학이 종합적으로 정리되고 임상적인 기틀이 완성되었기 때문이다.¹⁵⁾ 침구 전문 서적으로서 우리에게 익숙한 『鍼灸大全』 『鍼灸集書』 『針灸聚英』 『鍼灸節要』 『鍼灸問答』 『鍼灸大成』 등도 모두 이 시기에 저술된 책들이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침구 전문 서적이 간행되었음에도 정작 『東醫寶鑑』 鍼灸法篇에서 인용하고 있는 明初의 저작으로는 奇效良方(1470)¹⁶⁾ 醫學正傳(1515) 醫學綱目(1565) 醫學入門(1575) 古今醫鑑(1576) 萬病回春(1587) 萬氏家傳保命歌括(1567~1572)¹⁷⁾ 등이 전부이다. 이를 보면 침구전문서보다는 종합의방서를 기반으로 東醫寶鑑 침구부분이 완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히 『東醫寶鑑』에서 언급된 많은 침구치료 방법은 직, 간접적으로 『醫學綱目』에서 인용한 것들이 대다수이다.

요컨대 『東醫寶鑑』 鍼灸法篇에서는 많은 침구전문서들을 놔두고 『醫學綱目』의 침구치료법을 가장 많이 인용하고 있다. 이런 정황으로 볼 때 당시 『東醫寶鑑』의 편집자들은 『醫學綱目』이 東醫寶鑑이 완성된 1610년 이전에 정리된 침구서적 중에서 가장 최근의 서적으로서, 가장 많은 자료를 모은 서적으로 생각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醫學綱目』을 보면, 명나라 초기에 완성된 침구 전문서적들의 연구 성과가 이미 『醫學綱目』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醫學綱目』의 [《集》] [《摘》] [《撮》] [《玉龍》] [《撮要》] 등의 출전은 이러한 다양한 침구전문서적을 골고루 폭넓게 인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¹⁸⁾

게다가 『東醫寶鑑』 침구 치료부가 각 병증문 말미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醫學綱目』의 침구치료법도 각 병증문의 말미에 정리되어 있다. 물론 『世醫得效方』도 이러한 편집 특성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東醫寶鑑』 鍼灸法篇의 이런 편집 특성이 『醫學綱目』을 참고했다고 아니할 수 없다.

결국 이런 『醫學綱目』의 장점들 때문에 『東醫寶鑑』 편집자들은 『醫學綱目』을 위주로 『東醫

15) 이재동 김남일, 『중국 침뜸의학의 역사』, 집문당, 1997 p293

16) ()안은 간행년도. 王德深, 鍼灸文獻提要, 人民衛生出版社를 참고하였다.

17) 최용태, 「東醫寶鑑의 문헌적 고찰」, 구암학보

18) 『醫學綱目』의 인용문헌에 대해서는 다른 연구를 기대해 본다

寶鑑』鍼灸法篇를 꾸밀 수 있었고, 여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한 부분은 危亦林의 『世醫得效方』과 王執中の 『針灸資生經』으로 보충하고자 했던 것이다.

參考文獻

원전류

1. 許浚, 『東醫寶鑑』 영인본, 남산당, 1998
2. 李梴, 『醫學入門』 영인본, 고려의학, 1989
3. 『黃帝內經』, 반룡, 2000
4. 虞搏, 『醫學正傳』, 중의고적출판사, 2002
5. 朱震亨, 『丹溪心法』, 인민위생출판사, 1993
6. 龔信, 『龔廷賢 醫學全書·古今醫鑑』, 중국중의약출판사, 1999
7. 陳會, 『神應經』, 중국고적출판사, 2000
8. 危亦林, 『世醫得效方』, 의성당, 1990
9. 樓英, 『醫學綱目』, 중국중의약출판사, 1998
10. 皇甫謐, 『鍼灸名著集成·鍼灸甲乙經』, 화하출판사, 1997
11. 王執中, 『鍼灸名著集成·針灸資生經』, 화하출판사, 1997

저술류

1. 이재동 김남일, 중국 침뜸의학의 역사, 집문당, 1997
2. 김호, 허준의 『東醫寶鑑』 연구, 일지사, 2003.
3. 洪元植, 中國醫學史,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4.
4. 고흥균 인창식, 침구의학의 뿌리, 경희대학교 출판국, 2004
5. 최수한, 조선의적통고, 중국중의약출판사, 1996
6. 김두중, 한국의학사, 탐구당, 1981

자료 및 사전류

1. 中文大辭典編纂委員會, 中文大辭典, 臺北, 中國文化大學出版部, 1992.
2. 朴贊國 主編, 東洋醫學大事典, 서울, 慶熙大學校出版局, 1998.
3. 韓의학대사전편집위원회, 大漢韓辭典, 동양의학연구원출판부, 1985
4. 嚴世芸, 中國醫籍通考, 上海, 上海中醫學院出版社, 1991.
5. 何時希, 中國歷代醫家傳錄,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1.

논문류

1. 최용대, 「東醫寶鑑의 문헌적 고찰」, 구암학보 Vol 2
2. 김중권, 「『東醫寶鑑』의 문헌적 연구」, 서지학연구 제11집
3. 박문현, 「허임 『침구경험방』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2002
4. 서연철, 「한국 침구학의 사적 고찰」, 대한침구학회지 제13권 제1호 Vol13, 1996